

“이스라엘·우크라 지원” 미국, 대외 안보예산안 통과

130조원 규모 지원...팔레스타인 “전쟁 지속 신호” 규탄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중국 ‘틱톡’ 퇴출 수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감사를 표하며 환영했고 팔레스타인은 규탄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그와 더불어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맹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려곡절이 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파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정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하원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깊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다”며 “나는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합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 미국”이라고 적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하원의 결정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또 미국의 지원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계속하도록 청신호를 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 군비 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우크라전·가자전쟁 등 영향 지난해 3375조원...전 세계 5곳 모두 군비 확대 “글로벌 평화·안보 악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4430억달러(약 3375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며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로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에 달했고,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쟁 속 새 생명...엄마는 하늘나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습한 가운데 의료진이 20일(현지시간) 사망한 임신부에게서 극적으로 생존한 신생아를 꺼내고 있다. 가자 민방위대에 따르면 전날 폭격으로 어린이 6명과 성인 여성 2명, 남성 1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국명만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

원)로 집계됐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의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 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연합뉴스

인도, 일본 추월 1년 앞당긴다

내년 GDP ‘세계4위’ 예상

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내년에는 인도에도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인도의 GDP는 4조3398억달러(약 5985조원)로 일본(4조3103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국제통계기금(IMF) 분석이다.

원래 지난해 10월 IMF의 전망치로는 2026년에 인도가 일본의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IMF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에서는 역전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졌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인도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속 성장 중이기도 하다.

인도의 GDP 규모는 2014년 세계 10위였다. 하지만 IMF 예상치를 보면 인도는 2027년에는 독일도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은 GDP 순위에서 55년 만에 독일에 뒤지면서 세계 GDP 순위가 4위로 떨어졌다. 일본은 한때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속 성장하던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2010년 중국에 밀려 3위가 되는 등 갈수록 GDP 순위에서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금값 고공행진’에도 중국의 ‘금 사랑’

인민은행 17개월 연속 순매입 웃돈도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라

블룸버그통신은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악화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하락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수요는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값도 크게 올랐지만 중국의 금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과 펀드 투자자, 선물거래자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나서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금 매입 1위 자리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경쟁해왔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판도가 갈렸다. 중국의 금 관련 제품 소비가 10% 증가한 반면

인도는 6% 줄었다.

중국의 골드바와 금화 투자만 보면 28% 급증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 금이 더욱 인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프레스스 메탈 인사이트의 필립 클랩와이크 상무는 “중국에서는 별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 환율과 자본통제에 심해 투자할 만한 시장이 금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금 채굴량은 세계 최고지만 여전히 많은 금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금 수입량은 2800t이 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화 의존을 줄이고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금 수요가 높다 보니 중국 내에서 금을 매입하려면 국제 가격에 비해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한다. /연합뉴스

영광군 공고 제2024-531호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영 광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 시간적 범위: 2025년 ~ 2030년
- 공간적 범위: 전남 영광군 일원

구분	종류	과입내용	비고
군도	군도	- 군도: 23개 노선, 154.7km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 면도: 33개 노선, 81.2km - 리도: 85개 노선, 167.4km - 농도: 71개 노선, 156.5km	189개 노선, 405.2km

· 사업시행자: 영광군

2.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2024. 4. 23. ~ 2024. 5. 24.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영광군 건설교통과
- 정보통신망: 영광군 홈페이지(https://www.yeongwang.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의견제출: 공람기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 의견 등록
- 관계도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공람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4. 30. (화) 14:30
- 장 소: 영광읍사무소 대회의실(3층)
- 내 용: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4.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건설교통과(☎061-350-5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법 제43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유)바울산안태광발전사업
- 발전소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명리 170번지의 29필지 (총 30필지(광명리 1701-5, 1701-7, 1701-9, 1701-11, 1701-13, 1704-17, 1704-19, 1705-21, 1705-27, 1702, 1702-2, 1702-6, 1702-7, 1702-9, 1702-15, 1703-8, 1703-9, 1703-14, 1703-15, 1703-16, 1703-19, 1703-23, 1703-30, 1706-23, 1706-21, 1706-26, 1701, 1703, 1703-6, 1705-29)
- 발전소면적: 738,497㎡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7,987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01.01. ~ 2046. 12. 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바울산안태광 발전사업 대표이사 남정민

4.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62-263-8211 팩스 ☎62-263-8212 이메일: ham0485@hammail.net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드려도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법 제43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유)바울산안태광발전사업
- 발전소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명리 166번지의 31필지 (총 32필지(광명리 1616-6, 1616-8, 1616-2, 1616-4, 1620,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1617, 1617-2, 1617-4, 1617-6, 1618, 1618-4, 1619, 1619-2, 1619-4, 1619-10, 1614-2, 1614-3, 1614-4, 1614-5 / 광명리 1704-25 / 자등리 1976, 1976-2, 1977, 1977-2)
- 발전소면적: 740,863㎡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99,000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01.01. ~ 2046. 12. 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바울산안태광 발전사업 대표이사 김도원

4.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2-3440-7841 팩스: 02-6281-9001 이메일: 218001@dooso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서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드려도 가능합니다.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예성전기(“갑”)와 주식회사 신성일레컴(“을”)은, 2024년 4월 12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을”을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수반하여 “을”의 주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을”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 예성전기
전라남도 영암군도포면 호산로 34, 2층
대표이사 임환성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신성일레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779
대표이사 송재은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전문

010-3605-50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4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482,500,000원을 금 461,5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482,500주 중 보통주식 2,1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83,055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 4. 23.

건영전기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당2로 15 (주상동)
대표이사 김 병 권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 03. 29. 주주총회에 감응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23일
주식회사 수앤텍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정릉길 12, 2층 (중동)
창산인 이혜미

정정공고

본지 2024년 4월 18일자 게재된 우리전력(주)와 (주)진우개발의 분할합병공고 중, (주)진우개발의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147”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17”로 정정 공고함.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7 트라플워너 5층 503호
- 계약자: 주식회사 자승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4년 4월 23일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인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철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임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